

천도교와 청소년의 심성교육

송 준 석
(담양전문대학)

I. 서 론

전인교육을 주창한 페스탈로찌는 지력, 도덕력, 기술력의 3가지 기능이 모두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힘이 바로 심정력인 도덕력이라고 하였다. 그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도 아니요, 머리도 아니요 가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사회에 부적응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즉 따뜻한 가슴이 부족한 세상은 인간을 산업사회에서 소외시켜 기능인으로 전락시켰다. 실제 오늘날의 교육도 올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덕성의 함양, 지성의 계발, 기능의 전수가 고루 이루어져야 할텐데 실제 교육에 있어서는 기능의 전수가 크게 부각되어 인격의 도야 또는 덕성의 함양은 현저하게 후퇴되었다. 이리하여 ‘인간교육부재현상’이 일고 있다고들 하는가 하면, 교사는 있어서 스승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게 되었다(김정환, 1982 : 99).

교육을 좁은 의미의 기술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근원적인 문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종교를 “인간을 긍정적인 변화에 이르게 하는 실제적 수단”이라고 규정한다면 교육도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에 초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교가 지향하는 “변화”의 개념은 교육학적 해석을 통해서 교육학이 안아 들여야 되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적 귀결이다(정진홍, 1982: 193-197).

천도교에서는 원래 인간은 한울님에게서 조화되어진 존재이므로 선하다고 본다. 악은 후천적인 것으로 인간생활과 환경의 영향하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본다. 그러기에 현실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는 질병으로서의 악은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세상은 인간의 착한 심성을 해치는 죄악의 구렁텅이인 셈이다. 사실 이 세상은 이기심과 욕심 및 허영의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인간을 개벽하고 질병에서 구하며 인간성을 재창조하는 일은 수도(修道)와 수덕(修德)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신인간(新人間)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신인간은 그 해석의 틀이 변화되어야겠지만 최수운은 당시의 유교적 용어로 군자라 표현했다.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리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기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에 어긋나 나, 이것이 성쇠의 이치가 아니겠는가”(君子之德 氣有正而 心有定 故 與天地 合其德 小人之德 氣不正而 心有移 故 與天地 違其命 此非盛衰之理耶 : 東經大全, 論學文).

오늘날 이기주의적이고 편파적인 세상에 소인은 많지만 선하고 크며 온전한 덕에 합일한 합기덕(合其德)한 존재인 군자는 찾아보기 드물다. 각박한 세상에 청소년들에게 정신 개벽하여 새사람 참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천도교의 독특한 심성교육의 하나일 것이다.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자체까지도 위기와 파멸에 처하게 한 주범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 승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으며, 시기와 질투가 없고 오만하지 않으며 비굴함이 없는 성·경·신(誠·敬·信)을 갖춘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고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미래의 세계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부정부패와 퇴폐풍로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심성교육이야말로 우리모두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절대절명인 것이다. 심성이 바탕이 되어 그들의 장차 행동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천도교가 지향하는 심성교육의 방향과 현재 그것의 함양을 위해서 어떠한 실천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II. 사상적 기반

1. 자아 각성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 자기 자신일 것이다. 특히 천도교에 서는 인간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각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울님을 모신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거룩한 한울님을 모신 존재이기에 한울님이 해야 할 거룩한 일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실천하는 데 게을리 하면 한울님의 뜻과 한울님의 이치를 거스르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곧 한울님을 모시고 지키는 일이다. 최수운이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었어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하단 말가”(용담유사, 교훈가)는 바로 시천주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울님을 모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울님의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육신과 마음과 성품을 조화롭게 양(養)하고 한울님이 뜻에 맞는 새로운 세계 건설 즉, 개벽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듯이 천도교에서도 한울님을 모신 귀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각성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사명적 존재로서의 자아각성이 가장 우선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 세계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매우 혼탁한 상태에 있다. 자신을 위해서 한울님도 팔고 날이면 날마다 분열과 부정행위는 계속되고 도처에 도둑, 살인강도, 사기협잡, 마약중독, 인신매매 등 실로 말세적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인류사회가 병이 든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한울님을 모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병들었기 때문이다.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이기심으로 가득찬 마음에 정신이 병든 것이다. 쉬프랑거가 인격적 자아각성을 자아의식, 자아존중, 자아

비판, 책임의식 및 사랑의 감각의 도야라 했듯이 시천주로서의 자아각성은 한울님을 모신 존재로서의 인격적 자아각성인 것이다.

2. 자아 완성인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따라서 온전한 인간은 자기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즐기게 노력한다. 공자도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시종일관 그것의 실천에 몰두했듯이 청소년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 실천에 애써야 할 것이다.

천도교에서는 사람마다 자아완성을 추구하고 나라마다 보국안민하여 이 땅위에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것을 한울님의 뜻이라 한다. 사람의 인격은 동물적 인격, 윤리적 인격, 통신적(通神的)인격 및 천인합일의 인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물적 인격은 지식이나 수행보다도 모습과 체격등 외모를 보아 말하는 것이고, 윤리적 인격은 생김새보다도 소양이나 품행 등 윤리적인 면을 보아 평가하는 것이다. 통신적 인격은 한울님과 통하는 인격을 말한다. 그리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격은 한울님과 통할뿐만 아니라 한울님과 합일된 인격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항상 자기를 성찰(省察)하고, 인격을 도야(陶冶)하며 자아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아완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한울님을 위하는 주문을 많이 외워야 하며 수도(修道)를 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수도하지 않고 자아완성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학문과 재능도 길러야 한다.

천도교에서는 누구든지 빠른 시일 내에 자아완성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수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우선 입도의 절차를 밟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문(呪文), 청수(淸水), 시일(侍日), 성미(誠米), 기도(祈禱)의 오관(五款)을 실행하면서 수련(修練)을 하게 되어 있다. 수련은 보통수련, 특별수련, 독공(篤工)수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천도교의 수련은 가산을 버리고 산중에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과 더불어 부화부순하면서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수도원에서 특별수련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생활 현장에서 수도의 생활화, 생활의 수도화를 도모하고 수행(修行)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종로 제 거리에서 도를 닦아야 도통한다는 말이 있다.

천도교는 수도의 과정과 절차를 쉽게 밝혀 주고 있다. 강령(降靈), 강화(降話), 자천자각(自天自覺), 해탈(解脫), 대도견성(大道見性)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허광심(虛光心), 여여심(如如心), 자유심(自由心)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가르친다. 수도의 요체(要諦)는 수심정기(守心正氣), 성경심(誠敬心), 천지부모(天地父母), 이신환성(以身煥性)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특별 수련의 일정은 7일, 21일, 49일, 105일 등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수련하는 방법은 평좌장죽법(평좌장죽법)의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105염주(念珠) 또는 21주를 손에 들고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天德 恩)을 항상 생각하고 잊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21자 주문(呪文)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또는 13자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열심히 외우는 것이다.

지금은 돈과 지식과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만 미래 사회는 자아완성의 수도와 천국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일 많이 하는 것을 최고가치의 생활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수도를 하되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개인 행복 추구에만 빠지면 안된다. 자아완성과 지상천국 건설의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천도교의 수도요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울사람으로 자아완성을 실현하자는 것이 천도교인의 소망이다 (임운길, 1996: 52-54).

3. 생명존중의 심성교육

최해월은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니라’ 라는 천지부모 일체설(天地父母 一體說)과 한울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하라는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울을 공경하는 것은 곧 공경하는 것인데 이는 한울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 경지가 되지 못하고 물건을 공경함에 이르러서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 할 수 있다(海月神師法說, 天地父母).

이를 최해월은 내수도 문에서 부인에게 주는 글 형식으로 생활 속의 실천방향을 밝히고 있다. 내수도문 중 ‘가신 물이나 아무 물이나 땅에 부을 때 멀리 뿌리지 말며, 가래, 침을 멀리 뱉지 말며, 코를 멀리 풀지 말며, 침과 코가 땅에 떨어졌거든 닦아 없이하고, 또한 침을 멀리 뱉고, 코를 멀리 풀고, 물을 멀리 뿌리면 곧 천지 부모님 얼굴에 뵈는 것이니 부디 그리 아시고 조심하옵소서’ 라는 표현이 있는 데 이는 천지가 부모인줄 알고 자연을 보존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나면 모든 생명의 종자는 천지에서 길러지고 이를 인간은 먹으니 천지의 곡식은 바로 천지부모의 자식을 먹이는 일을 하니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은 별개의 아닌 하나인 것이다.

생명존중의 가치관은 생명에 대한 외경과 자존의 사상이다. 그것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상인 것이다. 해월은 생명존중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① 부모님께 효도를 극진히 하고
- ②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극진히 공경하며
- ③ 내 자식과 며느리를 극진히 사랑하오며
- ④ 하인을 내 자식 같이 아끼며
- ⑤ 육축이라도 다 아끼며
- ⑥ 나무는 생순을 꺾지 말며
- ⑦ 새 알은 깨지 말며
- ⑧ 땅 아끼기를 어머니살 같이 하라

위에서 언급한 말을 종합해 보면 자신을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인 부모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및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무시하기 쉬운 존재들까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천(天)·인(人)·물(物)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합일한다고 할 때 해월의 십무천(十母天)은 생명존중사상의 실천강령인 것이다.

첫째, 한울님을 속이지 말라[毋欺天]는 것은 모든 생명의 본성을 기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한울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毋慢天]는 것은 모든 생명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로 특히 힘없는 생명체를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뜻이다.

셋째, 한울님을 상하지 말라[毋傷天]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살상고 파괴와 폭력을 금한다는 뜻이다.

넷째, 한울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毋亂天]는 것은 생명체와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혼란케하는 온갖 책동을 금하라는 뜻이다.

다섯째, 한울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毋夭天]는 한울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단축하는 반생명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연생명의 무차별 살생이나 생태계의 파괴는 오늘날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여섯째, 한울님을 더럽히지 말라[毋汚天]는 오늘날 정신적 문화적인 타락으로 인한 사회환경오염과 자연의 훼손으로 인한 자연환경오염을 금한다는 뜻이다.

일곱째, 한울님을 주리게 하지 말라[毋餒天]는 생명체에게서 착취, 수탈 및 약탈을 하지 말고 생명을 먹여 살리는 분배정의 실현을 뜻한다.

여덟째, 한울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毋壞天]는 것을 환경을 부수지 말고 잘 보존하여 생명이 잘 자라도록 하라는 뜻이다. 이는 핵을 비롯한 가공할 만한 살상 무기와 독극물의 공해 및 폐기물의 공해를 퇴치하여 생명파괴의 일체의 것을 금한다는 뜻이다.

아홉째, 한울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毋厭天]는 인간과 자연생명이 싫어하고 원치 않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뜻이다.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일이듯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반생명적 행위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열째, 한울님을 굴하게 하지 말라[毋屈天]는 것은 요즘처럼 생명체를 경시하여 이용하고 착취하는 생명체 정복의 논리는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니 금해야 한다는 논리다.

모든 생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와너가 상호 존중하여 공존하는 인류공동체 의식과 만물과 공생하는 생명공동체 정신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사상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생명존중운동에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책임과 사명감을 심어줄 것이다. 그러기에 십무천의 현대적 해석은 현대의 생명존중의 10대 실천강령으로 청소년의 심성계발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다.

4. 인간존중의 심성교육

사람은 본질상 한울님에게로부터 나온 신성(神性)이 존재하므로 한울님을 존경하듯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이 천도교의 인간존중사상이다. 최수운은 봉건사회의 차별적 인간관을 부정하고 한울님을 마음 안에 모시면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다는 시천주사상을 주창했다. 이러한 시천주의 주체는 개개인이니 한울님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몸에 모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귀천·상하·반상의 구별을 철폐되고(최민홍, 1971: 297) 각기 자기 몸에 천주를 모시면 다같이 지상신선이요 군자라 함으로 만민평등의 인간관을 제시한다(신일철, 1974: 24). 이는 지별과 문벌을 떠나 인간이라면 노비든지, 천민이든지, 서자든지 누구나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성경신(誠敬信)을 통해 군자, 즉 무궁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인간평등, 인간존중의 사상이 내재해 있다.

최해월은 최수운의 시천주 사상을 발전시켜 사람이 태내에 생길 때부터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설법을 하면서 “한울을 양할 줄 아는 자라야 한울을 모실 줄 아나니라”라는 양천주(養天主)라는 색다른 설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侍)’자를 확대해석 하면서 양천주 하지 않으면 시천주가 아니라고 까지 했다. (해월신사법설, 천지인·귀신·음양), 해월은 내유신령(內有神靈)이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이의 마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가 태어날 때 욕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바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이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되는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길러야 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외유기화(外有氣化)되는 것이다. 즉 한울님과 한 개체가 되어 나 혼자 살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모든 자연과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이돈화, 1969: 38). 이는 곧

“인시천(人是天)이니 사인여천(事人如天)하라”는 차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이 그에게는 제일의 원리였던 것이다. 인간이 가진 부수적인 장식적인 조건이 아닌 인간자체의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수운의 시천주, 최해월의 양천주의 인간존중사상은 손의암에 와서는 人乃天으로 표현된다. 계급차별이 심한 19C의 봉건시대 하에 하인을 자식같이 대하고 어린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며 아내와 며느리를 한울님 대하듯이 존중하라는 인간존중의 사상은 제도적으로 인권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인권 유린에 대한 경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천도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들 지도자의 인간존중의 사상을 일깨워 인격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인간존중의 심성을 길러주고 있다.

5. 공동체 의식의 심성교육

천도교는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에 다같이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귀일체(同歸一體)사상을 주창하고 있다. 그런데 인류는 아직 동귀일체의 원리를 모르고 각자위심(各自爲心)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차원에서의 동귀일체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우리민족이 남북통일이 되며 모두가 평등하게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일이고 인류공동체의 차원에 적용해보면 세계평화가 유지되고 상호호혜의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는 부정부패를 일으켰다. 심지어 민중의 심부름꾼인 관료들의 부도덕한 정치형태는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고 생활난에 허덕이게 하는 것이다. 동학혁명도 이런 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정의롭지 못한 당시의 나라를 바로잡아 민생을 돕고 민중과 일체감을 갖는 것이 잘사는 사회의 건설이 천도교의 꿈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천도교인의 동학혁명에의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불의에 항거할 저항의식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저항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폭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서로의 고통에 동참하여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은 개인주의적 윤리관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더불어 즐거워 행복하는 심성을 청소년들에게 길러주었다. 개벽의 새로운 세계의 건설은 천도교의 이러한 정신의 바탕 하에 이루어지기에 개인주의적 윤리를 극복하는 정신적 토대가 된다.

이 『동귀일체』의 심성이 바탕이 되어 이를 실천해 옮기면 바르고, 복되고, 정의롭고 공평한 국가와 세계가 이룩될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화합의 일꾼이 되라는 사명감을 준 것이다.

최해월은 “한사람이 화(和)해짐에 한 집안이 화해지고 한 집안이 화해짐에 한 나라가 화해지고 한나라가 화해짐에 천하가 같이 화해진다”고 말했다.

6. 예의범절의 심성교육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과 만나고 사물과 접촉하며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천도교에서는 대인접물(待人接物)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인접물에는 절차와 규범이 있다. 이를 예의 범절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예의범절을 지킴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예의범절의 기본정신은 꾸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성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야 한다. 고대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의 범절은 마치 장유유서, 부부유별의 윤리관처럼 노소, 남녀차별을 전제하고 있으나 천도교의 예의범절은 차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인간존중과 인간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기에 최해월은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라 하리오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배울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執非我長 執非我師 吾須婦人小兒之言 可學而可師也 :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도가부인은 경솔히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을 상하는 것이다. 도인집 부인은 한울님이 노여워하고 기운이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솔히 아이를 때리면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니 일체 아이를 때리지 말라(道家婦人 輕勿打兒 即打天矣 天厭氣像 道家婦人 不畏天

厭 氣傷而輕打幼兒 卽其兒必死矣 切勿打兒 :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천도교의 예절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상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절이 아니라 상호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예절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에 따라 예절의 예를 들어본다면 식사시에 하는 식고(食告), 일상 생활에서 나들이 할 때 드리는 심고(心告)나 다른 사람과 대화시 부드러운 얼굴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존댓말로 응대하는 것등이다. 어려서부터 예절이 몸에 베어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III. 심성계발교육 프로그램

1. 수 도

종교는 종교마다 나름대로 수도 방법과 절차가 있다. 수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수련과정이다. 수련의 과정에서 얻은 것이 바로 천도교인으로 심성변화가 아닌가 한다. 천도교도 그 나름의 독특한 수도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해 볼 수 있다. 별도로 청소년 수도법이 따로 있지 않기에 일반적인 수도 방법을 서술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날 청소년에게 적합한 수도방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 ① 내 몸에 모신 한울님을 믿고 마음을 닦는 일.
- ② 인내천(人乃天)의 신심(信心)을 근간(根幹)으로 해서 수도하는 일.
- ③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모든 일을 진리에 어김이 없게 하는 일.
- ④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윤리를 생활신조로 해서 수련하는 일.
- ⑤ 성·경·신(誠·敬·信)을 몸소 체행(體行)하는 일.
- ⑥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심법(心法)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 성경신(誠敬信), 이신환성(以身換性), 천인합덕(天人合德)에 이르는 과정.

- ⑦ 성심신(性心身), 삼단(三端)을 깨달아 자아완성을 추구하는 과정.
- ⑧ 개인적으로 도성덕립(道成德立), 가정적으로 도가완성(道家完成), 사회적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의 대업 성취를 기도의 핵심으로 하는 일.

이의 실천을 위해 수도의 규범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심고(心告) : 모든 일상행위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한울님께 고함.
- ② 오관(五款)실행 : 천도교인으로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다섯 가지 실천덕목. 즉 주문·청수·시일·성미·기도를 몸소 체행함.
- ③ 수련(修鍊) : 천도교인으로서 덕성을 높이고 도력(道力)을 기르기 위하여 심신을 연마함
- ④ 경전(經典)과 교사(敎史)연구 : 경전과 교사 공부를 하여 정심수도하도록 함.
- ⑤ 계명(誠命) : 항상 계명을 지켜 정심수도하도록 함
- ⑥ 참회(懺悔) : 항상 자기 허물을 참회하여 한울님의 감화를 받고 정심수도함.
- ⑦ 신앙통일(信仰統一)과 규모일치(規模一致) :
 - 각자 자기의 습관천을 믿지 말고 오직 자아 본래의 한울님을 믿는 것으로써 신앙을 통일함
 - 각자 저기가 아는 지식의 힘으로 판단하여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오직 사회(교회)의 결의에 따라 행동통일을 함
 - 인내천(人乃天)의 일대 목적과 성신환신(性身換信), 규모일치(規模一致), 지인공애(至仁公愛)의 삼대강령과 성경신법(誠敬信法) 사과(四科)·주문·청수·성미·시일·기도의 오관(五款)을 체행함.

이상 일곱 가지는 기본적으로 실행할 사항이며 특히 수련은 수도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련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심신을 제대로 연마할 수가 없고, 덕성(德性)과 도력(道力)을 기르기도 어렵다고 본다.

이 수련은 심고(心告)와 주문(呪文)과 경전과 천덕송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

어지는 마음공부의 과정이다. 그리고 특별수련기간에는 어육주초(魚肉洒草)를 금한다(임운길, 1996: 146-148).

이러한 수련과정은 청소년의 마음을 닦는 청소년의 심성교육의 기초라 볼 수 있다.

2. 하계수련회

천도교중앙총부는 연례행사의 하나로 용담수도원, 가리산수도원, 화악산수도원, 의창수도원, 강릉수도원, 호암수도원, 원동수도원 및 북호동수도원에서 청소년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의 목적은 첫째, 자아완성을 위해 한울님 모심을 체득하자, 정신개벽으로 한울사람이 되자, 사인여천을 실천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교회 중흥과 남북통일을 기원하자는 것이다.

가리산청소년수련회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6년 7월 26일부터 31일 까지 5박6일 동안 강원도 홍천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제2회 가리산청소년여름캠프를 열었다. 그 주제는 '한울님 모심과 나의 귀함'이었고 '다양한 자기표현과 자기 찾기를 통해 한울님 모신 존재로서 나를 다시금 세우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가리산 여름캠프에는 지도교사 및 초·중·고·대학생자원봉사자등 122명이 참가했다.

첫날은 개강식을 갖고 참가자를 9개 집으로 나누고 자기소개와 집별토의를 했다. 둘째 날부터 오전 5시에 기상하여 27일과 28일은 기도식과 수련, 강강수월래, 마음트기, 특별활동, 물놀이 및 택견등을 실시하고 29일은 가리산 산행 및 집별모임, 30은 작은 운동회, 집별 창작발표회, 불놀이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천도교월보, 1996. 8. 10). 청소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깨우치며 청소년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면서 아름다운 심성을 가꾸었다.

3. 성지순례

1996년 여름까지 천도교 청소년회 대학생 단은 14차에 걸쳐 성지순례를 해왔다.

성지순례를 통해 대학생들은 천도교의 탄생 및 성장배경이 되는 교회사적지를 직접 가서 보고 생생하게 느낌으로써 초창기 종단지도자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 겪었던 험난한 고행에 동참함으로써 신앙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천도교의 신앙 정신을 돈독히 하고 신앙실천의 바탕이 된다.

4. 수운예술제

수운예술제는 천도교 서울교구 학생회의 주최로 1968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8회째 맞는 중고생들의 축제마당이다. 그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예술제는 천도교인으로서의 참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외침이다. 천도교인으로서의 참모습을 다름아니라 ‘인내천’의 경지에 입각하여 자아인격을 도야함을 물론 ‘사인여천’의 새 윤리를 실행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동덕상호간의 동규일체를 도모하는 심성을 기르는데서 구현된다는 외침이다. 예술제의 구성은 문학, 음악, 연극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5. 잡지 발간

천도교는 1920년도에 일찍이 「개벽」, 「신여성」, 「별건곤」, 「학생」, 「어린이」, 「부인」, 「조선농민」, 「중성」, 「새벗」, 「농민」, 「혜성」, 「제일선」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눈부신 출판문화활동으로 대중을 계몽하였는데 오늘날은 그 문화활동이 시들어 버린 감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잡지 「새학생」이 오늘날까지 발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종교행사에 관한 소식, 종교에 대한 지식, 시, 수필, 신앙수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참된 천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하는 청소년의 심성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6. 한울학교

가리산 한울학교는 기존의 청소년 수련회가 대상만 다를 뿐 일반수련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에 반성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 수련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했다(1997년이 3회). 이 한울학교는 주입식의 신앙수련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그 안에서 종교적 가르침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방침을 정하고 있다. 연령별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주요 진행 내용은 강의, 수련, 마음트리 및 몸살림, 연극, 검무로 나누어진 특별활동이다.

이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와 고민을 함께 하여 교사와 학생간 및 학생상호간에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신인간 599호 : 73). 이는 천도교의 청소년 심성계발교육 프로그램으로 적극 개발하여 천도문화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천도교는 시천주와 사인여천의 사상의 기반 하에 있기에 인간 본래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는 윤리관을 실천하는 종교이다. 그러기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착한 자기를 각성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케하고 자기존중의 틀을 넘어 인간 상호를 존중하며 아울러 이 지상의 생명까지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심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 하에 성장한 청소년들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비롯한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및 사회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고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착한 심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에 의해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부정부패와 퇴폐풍조가 만연된 위기와 파멸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 즉 더불어 잘 사는 세계로 개벽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물까지 공경하고 아끼는 심성은 현대사회의 환경윤리를 제공하여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인류의 실천윤리로 가치가 있다.

천도교에서도 이러한 심성을 길러주기 위해 수도를 기본으로 하고 하계 수련회, 성지순례, 수운예술제, 청소년 잡지발간 및 한울학교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심성계발교육을 하고 있다. 점차적인 발전이 있긴 하지만 청소년 심성계발

교육프로그램이나 조직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계속적이기보다는 짧은 기간의 일회적 성격의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나라 미래는 청소년들의 심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심성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종단적 규모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동경대전.

용담유사.

해월신사법설.

새학생(29호, 30호, 34호).

수운예술제(제27회, 제28회 안내책자).

신인간(502호, 503호, 504호, 506호, 507호, 508호, 511호, 533호, 548호, 559호).

천도교월보(1996. 7. 3. , 1996. 8. 10.).

김정환(1982). 전인교육론. 서울:세영사.

김정환(1995). 페스탈로찌의 교육철학.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송준석(1993). 동학의 평등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일철(1974). 최수운의 역사의식. 한국사상 연구소. 최수운 연구, 한국사상, 12. 서울: 원곡문화사.

이돈화(1969). 수운심법강의. 서울:천도교중앙총부. 서울: 한국사상 연구소.

임운길(1996). 우리의길. 서울: 개벽사.

정진홍(1982). 교육사와 종교학. 한국교육사 연구회. 한국교육사 연구의 새방향. 서울: 집문당.

최민홍(1971). 한국윤리사상사. 서울: 성문사.